

보도자료



(주소) 1707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전화) 031-288-5300 (팩스) 031-288-5339

배포일	2025.11.18.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도일	2025.11.19.				
해외에 있던 경기도 문화유산 '홍중기 백자지석'의 뜻깊은 귀환		3	5	www.musenet.ggcf.kr	부서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담당 : 김영미 전화 : 031-288-5350

해외에 있던 경기도 문화유산 '홍중기 백자지석'의 뜻깊은 귀환

- ▶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박물관에서 '홍중기 백자지석' 귀환 및 기증식 개최
- ▶ 해외에 떠돌던 경기도 문화유산인 지석이 흩어지지 않도록 기증자가 직접 구입 후 기증
- ▶ 해외 소재 경기도 문화유산이 경기도의 품으로 돌아온 첫 번째 사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2025년 11월 17일(월) 조선시대 '홍중기백자지석'의 기증식을 개최했다(사진 1). 기증식에는 유물을 기증한 재일교포 이수혜님과 홍중기의 본관인 풍상홍씨 대종회 홍광식 회장, 풍상홍씨 추만공파 종중 홍경희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홍중기 백자지석'의 정식 명칭은 〈백자청화'홍중기'지석〉으로 조선시대 18세기 중반 제작된 것으로 총 7매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2·3). 이번 기증식이 뜻깊은 이유는 기증자 이수혜님이 일본에 있는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고국의 품으로 귀환시킨 점이다. 또한 경기도 차원으로는 국외 소재 경기도의 문화유산이 귀환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홍중기 백자지석'은 모두 7매의 청화백자로 되어 있다. 지석은 본래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기록을 새겨 무덤에 같이 묻는 것이다. 지석의 주인공인 홍중기(洪重箕, 1650-1706)는 풍산홍씨로 호조정랑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손자 홍봉한은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기도 하다. 홍중기가 사망한 후 무덤에 지석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그의 손자 홍상한(洪象漢)이 지석을 만들었다. 지석의 글은 조선 후기 영조시기 승지를 지낸 어유봉(魚有鳳)이 지은 것이다. 백자지석이 만들어진 시기는 1759년 경으

로 왕실 관요가 1752년 분원리로 이전한 이후로 추정된다. 백자의 유조가 맑고 청백색을 띠며, 청화안료가 정선된 푸른색으로 금사리의 특성을 지닌 분원리 초기의 최상질 백자이다.

홍중기 백자지석은 한국에서 유출되어 일본의 골동품상에 진열되어 있었다. 기증자이수혜님이 이를 보고 7매의 지석이 뿔뿔히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한꺼번에 구입하여소장하게 되었다. 이후 지석을 한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수소문 중 '홍중기'란 인물이활동한 경기도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 그 시기가 25년 9월 초였고 경기도박물관 측에서는 신속하게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귀환시키기 위해 총력을기울였다.

경기도박물관은 홍중기의 후손인 풍산홍씨 추만공파 종중과 접촉해 조상의 지석의 존재를 알리고 뜻깊은 기증과 귀환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이에 풍산홍씨 추만공파 종중에서도 이번 귀환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향후 DMZ에 위치한 풍산홍씨 추만공파 묘역의 학술연구조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일본에 소재한 경기도 문화유산의 통관과 안전한 해외 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1월 초 경기도의 품으로 돌아오게되었다.(사진 4)

기증자 이수혜님은 아름다운 기증의 뜻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경기도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고, 풍산홍씨 종중에서도 선조의 유물이 경기도로 돌아오는 것에 매우 반겼다. 국외 소재 경기도 문화유산이 경기도로 귀환한 첫 사례로 기록되어 더욱 뜻깊다.

경기도박물관은 이번 기증식의 의미에 대해 "기증자의 뜻깊은 선행으로 해외에 있던 경기도 문화유산이 고국의 품으로 귀환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기도 관련 문화유산이 귀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기증된 유물은 보존 처리를 거쳐 전시로 도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사진 자료 원본 첨부]





1. 〈백자청화'홍중기'지석〉기증식



3. 〈백자청화'홍중기'지석〉 7점 전체

2. 〈백자청화'홍중기'지석〉 첫 번째 장



4. 일본 내 유물상태점검 및 인수